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박창환

광풍이 불고 구름이 해를 가리워 캄캄할지라도 하늘에는 여전히 태양이 떠 있듯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혼란하고 암흑하더라도 하늘에는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다. 즉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다.(요한계시록 4:1~6)

역사가 아무리 질서도 없고 난마(亂麻)와 같이 마구 얽혀 있어서 절망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주에 꽉 들어 차 있다. 오리무중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할 것 같은 정글을 걷고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성자 예수는 확실히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 주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길이 어떤 것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과 진리를 보여 주시려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자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 진리와 그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쓴 책 곧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책에서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발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참된 삶을 살게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1. 성경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표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근본적 규범을 그 속에서 찾아야 한다. 성경이 없었더라면 세상은 혼란해졌을 것이다.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길을 가다가 서로 충돌하고 제 멋대로 살면서 혼란을 빚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함께 통일된 길을 가며 화평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2. 성경은 인간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사람이면 누구나 읽고 그 말씀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따라서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즉 만민에게 보급되어야 한다. 성경을 가지는 사람만 가지고 한부분의 사람만 읽고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 성경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양 어디서나 다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세상 구석구석에 널리 보급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 동시에 그 어디에서나 성경을 보급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많은 경제적인 보조와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성경이 저절로 전파되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성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그리고 그

시대말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 과거의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려 노력하고 많은 금전을 들여 노력한 결과 우리는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 그 일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오는 새 세대들에게도 잘 이해될 수 있는 성경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훌륭한 학자, 번역자들을 내야하며, 동시에 그 작업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성경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잘 이해되도록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공동적인 책임이기도 하다.

4. 성경을 책으로 전해 주는 외에, 우리의 말로 해석하여 가르쳐 주기도 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실천되어, 실생활로 연출 되도록 하여, 보고 듣고서 깨닫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으로 번역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서 느끼고 깨닫도록 해야 하겠다. 말씀을 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백방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출처: <성서한국> 1983년 12월 31일 29권 2호)